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 이스라엘의 왕이 오심

(스기라 9:9-17)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찾아 나서고 구원하고, 모으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 원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호와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렇습니다.**

### 1. 오시는 메시아

9절과 10절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였는데 이 메시아는 크게 4가지 특징, 성품을 갖고 오십니다.

#### 첫째로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 그의 성품이 공의롭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보다는 메시아의 다스리심, 즉 통치하는 방법이 공의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 자신이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때문에 그의 통치하는 법도 공의롭습니다. 이 세상에 공의로우신 통치가 없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공의가 먼저 있을 다음에야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공의가 먼저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모든 통치를 공의롭게 하십니다. 공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 둘째로 그분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노사’라고 읽힙니다. 그런데 이 노사라는 말은 메시아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다소 이상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메시아가 구원을 갖고 계신다. 그런 고로 갖고 계신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자로 해석하면 신학적으로 맞지 않고 후자의 해석이 옳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란 것입니다. 그 분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 셋째로 겸손하십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9절) 이 겸손이란 단어는 왕에게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성품입니다. 알렉산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왕들은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그것이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실만큼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심금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습니(막 10:45).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자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돌아보면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머리 들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 바로 그분 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참 메시아 되심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넷째로 메시아는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10절).

메시아가 악마와 싸워 이김으로 인해 이방인에게까지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9절에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고 10절에는 평화가 이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메시아는 오셨습니. 그러나 완전한 평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 완전한 평화가 올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 2. 마카비 시대의 예언

마카비란 사람은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13절에 분명 마카비 시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즉 이스라엘 자식들을 일으켜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읽

어봐도 헬라, 즉 그리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알렉산더 대왕 이후 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에 반항하기 위해 일어난 유대 독립군의 운동, 즉 마카비 운동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나라가 3등분이 되었으며 유다도 세 조각 중 하나로 떨어졌습니다. 그 때 유다를 다스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안티오쿠스4세 BC175-163)는 아예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희생제물을 금지시켰습니. 또 안식일을 폐지시켜버렸습니. BC 167년 12월 이방제단을 세워놓고 유대인의 금기로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다니엘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장한 것을 세울 것이며...(단11:3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단12:11)”.

이때 예루살렘 서북쪽 모대인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독립운동의 발상지가 됩니다. 이방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는 수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받은 제사장 마타티아스가 반항을 했고 마침내 제사를 지내러 온 모든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임에도 하나님 앞에서 배신자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죽여 버렸

다. 또 수리아의 관리도 그 자리에서 죽여 버리고 다섯 아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을 잡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뒤를 따라 마타티아스와 연합해 독립당을 만들고 게릴라 운동을 벌였는데 이것이 유대독립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후 그의 다섯 아들 중 유다 마카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전쟁을 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모든 이방신을 때려 부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BC 165년 12월 25일인 이날을 기념해 수전절이라 부르며 빼앗겼던 성전을 회복하고 그것을 성별시켜 하나님께 바친 날로 기념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로 축하를 하는 이날을 유대인들은 수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 3. 오실 메시아의 모습

마카비 시대로부터 14절이 전환점을 이룹니다. 마카비에 의해 독립을 한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는 목자로 오십니다. 군대 장관이 아니라 연약한 목자로 오실 것을 14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명합니다. 17절까지는 자기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16절)” 이리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양떼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목자뿐입니다. 아직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바로 그 상황, 즉 “이날에” 여호와께서 자기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여호와와 땅에 빛나리니” 그들이 비참하게 끌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빛나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될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찾아 나서고 구원하고, 모으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시편 23장에서는 목자장 되시는 메시아를 노래하면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 원하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호와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렇습니. 오늘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5년 교회설립기념 주일에 헌당케 하옵소서

##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건축헌금(작정) 드려

서울교회는 2000년 12월25일 성탄절 온 세상을 가득 덮은 축복의 서설을 밟으며 이곳 대치동 예배당에 입당한 이후 4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얼마전 교회는 이곳 대치동 예배당에 입당한 이후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어 건축을 위해 헌신할 기회가 없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 헌당의 귀중한 자리에 참여하고 기존 교인들은 더욱 충성하기 위하여 내년 교회설립기념 주일 헌당하여 주님께 바치는 날로 작정한 바 있다.

오늘은 헌당을 위하여 건축헌금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건축헌금을 작정하게 된다. 옥합을 깨뜨려 귀중

한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긴 마리아처럼 정성을 다하여 지난주일 주부와 함께 배부된 건축헌금(작정) 봉투에 믿음대로 힘껏 건축헌금을 드리거나 혹은 작정한 건축헌금액과 납입방법 등을 봉투에 기재하여 예배시간에 헌금주머니에 넣으면 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서울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기도한다. 건축헌금에 동참하시는 성도들은 그 명단을 동판에 새겨 기념하게 된다.

# 새 시대를 여는 기회를 만듭시다!



오정수 장로  
(바자회위원장, 9교구)

우리교회는 9월15일(수)부터 17일(금)까지 예배당 헌당과 이웃돕기를 위한 열린 바자회를 가집니다. 이번 행사가 특별히

뜻 깊은 것은 2000년 12월25일 입당 후 예배당 헌당을 소원하고 있는 온 교회의 뜻을 이루며 동시에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기 위한 이웃돕기를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서울교회는 1991년 교회설립과 동시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부지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필요를 따라 자재를 쓰듯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를 드리고 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창조 계산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의 가진 것 헌신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바자회도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가장 귀한 것 드려 하나님의 집을 헌당하는 감격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새 시대를 여는 영광스러운 서울교회가 되기를 빌어 봅니다.

# 이웃사랑 교회사랑 2004 열린바자 내 몸을 드려 이웃사랑 · 교회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15일(수) 12시 30분 개장, 17일(금) 오후 7시 폐장

이웃사랑을 위한 섬김을 증시하는 서울교회가 그 실천의 자리로 마련하는 이웃사랑 교회사랑 2004 열린바자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은 교구별로 정성을 다해 판매할 상품을 준비하였으며 이제 개장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이번 바자는 수익금을 이웃사랑과 교회헌당을 위해 사용키로 하여 성도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모든 성도가 바자에 동참하여 이웃사랑의 증거를 보여주고 헌당의 기쁨을 함께 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며 가정에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을 준비하도록 기도한다.

각 교구별로 판매할 상품은 다음과 같다.

- 1교구: 호박죽, 보세미류, 약세서리, 돗자리, 오가피
- 2교구: 식혜, 나나스계, 당면(잡채), 찰보리, 쌀, 수제비, 한과

- 3교구: 녹두전, 양말, 스포츠의류, 만두, 벌꿀
- 4교구: 고춧가루, 참깨(국산), 참기름(국산), 들기름, 된장, 간장, 청국장, 스포츠의류, 수입종교차, 배추김치, 과일류, 성경책
- 5교구: 화장지, 여성의류, 매실고추장, 매실간장, 구두, BYC(내의)
- 6교구: 해물전, 의류, 건어물, 오징어젓갈
- 7교구: 감자전, 밀반찬, 젓갈류, 돈보기, A4복사용지
- 8교구: 참기름, 수정과, 여성 가방
- 9교구: 가전제품, 사과편, 삼계탕, 들깨가루, 도토리묵 가루
- 10교구: 영양고추가루, 건어물, 밀반찬, 고추장
- 11교구: 수출용숙육, 약세서리, 커피, 떡, 인마기, 천연향
- 12교구: 도토리묵, 고춧가루, 현우, 여성정장, 국수, 알타리김치, 굴비, 거봉포도, 고추장된장 선물세트, 팔죽
- 13교구: 식당운영(잔치국수, 비빔밥, 육개장), 수입니트, 옥수수, 고구마(감자), 가래떡, 수입화장품
- 14교구: 떡볶이, 오명, 순대, 생밤, 꿀, 포도즙, 짜장, 생필품

# 주기도문 · 사도신경 재번역 급진전

## 한기총 · 교회협이 참여

2년전 8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우리교회가 헌의하여 10년간 토론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던 주기도문 · 사도신경 재번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총회는 이종윤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위원으로 신학교수 7명을 임명하여 1년간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케 한바 번역 상 문제 제기는 별로 없고 타교단과의 연계 문제로 위원회는 존속시키되 한국교회 일치 차원에서 문제를 풀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목사는 즉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한기총)와 기독교교회협의회(NCC)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바 양 기구는 한국교회 예배 발전에 결정적

인 영향을 주는 주기도문 · 사도신경을 바르게 번역하기로 결의하고 두 기관 모두 이종윤 목사를 각각 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한기총 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 연구모임을 가진 바 있고 9월13일 3차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NCC 위원회는 10월15일 연구모임을 소집하고 회원교단을 대표하는 4인씩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회 전체를 포함한 위원회가 조직됨으로 바른 예배를 희망하는 한국교회가 바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예배 때마다 드리고 사도신경을 고백케 될 것이다.

# 교회 결혼식 흐름 결혼예식 신청 이렇게 한다

<결혼식 흐름도>



<결혼예식 참조>

1. 담임목사의 주례를 받기 원하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 중 1인이 등록한 지 3개월이 지난 자로 학습 또는 세례를 받은 자로 한다. 단 결혼식 장소는 본 교회로 제한한다.
2. 본 교회의 등록 성도 중 교회 외의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기 원할 시에는 교구담당목사가 주례할 수 있다.
3. 부모가 등록교인이고 결혼당사자(신랑, 신부) 모두 타고 인일 경우 교회장소 사용은 가능하며 이 때 교구담당목사가 주례한다.
4. 분당 사용을 원하는 경우 하객 1,000명 이상(식당 예약) 이어야 하며 교회 형편이 허락하는 날에 허락할 수 있다.
5. 예식사건, 음식, 꽃 장식은 교회지정 방식을 권장한다.
6. 화환은 사절하고 껌은 허락하지 않는다.



# 돌아보는 서울교회 III

## - 대치동 시대(1) -

다음은 헌당을 앞둔 기획기사로 서울교회 10년사에서 발췌, 4회에 걸쳐 내보낸다.

서울교회는 창립 9년여 만인 지난 2000년 12월 25일 성탄절에 감격스런 입당예배를 드리며 대치동 시대를 열었다. 그동안 논현동과 반포동을 거치며 일반 건물을 임대해 예배당으로 사용해오던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예배당을 새로 건축해 입당을 한 것이다.



1998년 11월 2일 새예배당 건설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상상중임건설과 체결하며...

이 대치동 예배당에 입당하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드라마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간략히 적는다.

### 가. 부지선정

교회는 창립된 지 3년 10개월만인 95년 9월 당회와 제직회에서 만장일치로 대치동 새 예배당 부지를 확정했다. 이 부지는 대치동 210번지로 강남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지역전도의 영역이 넓고, 지하철 역 부근이어서 교통이 좋을 뿐만 아니라 6천여 평 규모의 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환경도 쾌적했다. 그동안 수도권을 돌며 100여 군데나 봤던 예배당 부지 가운데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춘 대지는 없었다. 이 땅은 그 당시에도 평당가가 천만 원을 훌쩍 넘던 땅이었다. 교회 재정 여건상 구입이 결코 쉽지는 않았



1998년 10월 10일 일시적 감사예배 후 첫삽을 드는 모습



2층 본당 바닥 타일공사 진행 모습

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다. 대지가 결정된 직후인 95년 11월 5일 교회는 대지 구입비 100억 원을 목표로 전 교인이 건축헌금을 드렸다. 당시 당회원들은 건축헌금 작정을 앞두고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철야기도회를 가졌고, 전 교인들은 형편과 상관없이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너나없이 건축헌금을 드렸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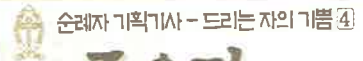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 본당

날 하루 집계된 헌금 액수는 무려 62억 원. 기적 같은 일을 보며 헌금계수위원장도, 당회원도, 성도들도 모두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회는 이 헌금 가운데 50억 원으로 대치동 예배당 부지 2,713㎡구입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 나. 건축허가

건축심의 과정에서는 주변 주민들이 관할 구청에 건축을 반대하면서 건축허가가 2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대논리나 요구사항 등이 대부분 터무니 없었지만 주민을 위한 교회가 지역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당회장 이종윤 목사의 방침으로 우리 측

이 수용할 것은 수용해주었다. 그러나 그 허가지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100억 원이나 되는 대지 구입대금을 2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던 터에 건축까지 시작했다면 감당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이 같은 허가지연이 하나님의 '자연작전'이었음을 후일에야 깨닫고 성도들은 다시 한번 감사했다. 교회는 2년여의 협상 끝에 1997년 홍해작전을 마친 6월 25일 '교회가 짓고 싶은 대로 지으라'는 주민 측의 통보를 받고 또 한 번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후로 교회는 일사천리로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97년 10월 6일 건축허가를 받아냈다. 91년 10월 6일 논현동 콘크리트 바닥에서 169명의 성도들이 눈물의 첫 예배를 드린 지 정확히 6년이 되던 날이었다.



# 죽으면

## 죽으리라!!!



한금의 권사(6교구)

하늘은 높아가고 이제 가을이 문턱에 왔다.

그 푸르렀던 잎들이 한 잎 두 잎 붉은 물결을 들이며 아침 저녁 찬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떨어지므로 나무가 겨울 준비를 하듯 몸된 교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과 봉사로 붉게 태

우며 한결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묵묵히 지켜 오신 한금희 권사님!

9년 전 심장병으로 쓰러져 수술 받으려 했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집을 팔아 수술비용을 마련하셨다. 수술 받으러 병원에 가셨다가 수술비용을 아끼어 건축헌금을 바치실 생각에 약물로 치료하기로 기도하시며 결심 하셨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로 주님께 매 달려 약물로 치료 받으시는 가운데 관상동맥이 뚫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말씀이 뚫어진 핏줄에 주님의 피가 도는 것 만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주신 큰 선물이니 줄 믿는다.

칠순을 넘기신 한 권사님께서서는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시느라 9년째 인천에서 전철을 몇 번씩 바꿔 타시며 달려오시고 있다.

재산이라고는 작은 집 한 채 뿐인데 노후에 어떻게 살려고 하시냐는 주위의 만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남편 이덕빈 집사님과 의논하여 인천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리셨다. 잠시 잠깐 사는 세상,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할 인생인데 그래도 50년 임대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마냥 행복해 하셨다. 남편 이덕빈 집사님도 육사 8기생으로 6.25 마지막 전투를 사수할 때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시며 건축헌금 드린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받은 주님 사랑의 작은 화답이며 아름다운 의무라고 생각하는 권사님이시다. 살아생전 번듯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 지금보다 더욱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교회 사랑이 첫째이며 교회 사랑하는 만큼 마음과 물질이 따라간다고 마음껏 바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서울교회되기를 소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한 권사님! 대치동 한복판에 주님의 피를 선명하듯 외치고 있는 서울교회!

교회 벽돌 사이 사이 한 모퉁이에서 한 권사님의 심장 고동소리가 들리고, 어떤 성도의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유언으로 남긴 씩씩함이 하늘의 노래로 흐르고, 가난한 노동 품 팔은 성도의 땀방울이 떨어져 얼룩져 있으며 과부의 엽전 두 닢이 눈물로 반짝이며 말한다.

너는 주님 위해 무엇 했느냐~

신동기(편집부)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 - 십계명으로 신앙의 기초를 다지며 -

지쳐 쓰러질 것만 같던 여름도 훌쩍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며,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달려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다.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향기로운 바람은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지친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기 위한 가을 사경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월요일 새벽 5시부터 시작 된 사경회의 강사로는 장로회 신학대학 교수였으며 현 새문안 교회 담임목사이신 이수영 목사님이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이르는 십계명을 다시 찬찬히 살펴 보

로 신앙인으로서 기본을 다지며,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되새겨 보는 뜻 깊은 시간이기도 하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척도이기도 하다. 오늘날이 십계명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거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것으로 여실히 마음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짚어 주었다. 십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천국백성이 지켜야 할 선물이며 하나님의 자녀 된 표지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성도들의 일차적 관심사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녹아 있어 하나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말씀대로 살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목사님은 십계명 강해를 통하여 제일은 누구를 섬길까 제이는 어떻게 섬길까 제삼은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제삼은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의 마음

과 행동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제삼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수직적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설교 첫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는 것이다. 제육은 동족과 개인 간의 살인을 금지하나 전쟁과 법이 정하는 사형제나 과실 등에 의한 것은 제외되며 제칠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람과의 성관계 이외의 모든 관계를 배제하라는 것과 제팔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으로 특히 인신매매에 대한 신적 제약을 금하라는 말씀이다. 제구(九)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뿐만 아니라 일체의 악의적인 거짓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제십은 단순히 남의 것을 탐내지 말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십계명 강해를 마쳤다.

글: 유명희 사진: 오주명(편집부)



천국시민 양성 - 제 4회 새가족부 홈커밍데이연장 스케치

# 한 가족 되신 것을 환영 합니다!!!

10여 년만의 뜨겁게 달구었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 선선한 바람에 풍성한 과실 열매가 익어가는 9월 첫째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새가족부 주관으로 8층 만나 홀에서는 멋진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홈커밍데이는 지난 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새로 서울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을 위한 축하 겸 교제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글로리아 중창단의 기쁜 찬양이 참석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한껏 열어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노송성 장로님의 사회로 감사예배가 시작되었다.

험시바 중창단의 감미로운 찬양에 이어 이종윤 목사님은 말씀을 통하여 한 가족 된 것을 감사하며 서로 가까워지도록 칭찬을 아끼지 말 것과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하셨다. 또한 자주 교회를 왕래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특히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늘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고 하셨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로 작은 것 안타까운 것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으며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

셨다. 그리하여 서울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믿음이 도달하는 가족이 될 것도 아울러 부탁하셨다.

이 잔치를 위해 새가족부의 전도사님, 부장님을 비롯하여 부감님 각처에서 소리 없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며, 이 잔치를 위해 식당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땀 흘려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새가족부 선생님들의 수고와 식사 시간 내내 잔잔한 음악으로 실재를 정겹게 이끌어 준 아멘관현악단에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 성도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물질로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면서 이제 서울교회 한 식구가 된 새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 주위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누어 주는 믿음이 기쁨이 있기를 기도한다.

사진: 정인주 집사



### 등정

- 이종윤목사는 13일(월) 한기총 주기도문·사도신경 재번역위원회를 소집한다. 13일부터 17일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89회 총회 총대로 오정수 장로와 함께 참여한다. 16일(목) 세계 기독교인대회에서 설교한다. 18일(토) 장로교 정기 신학발표회를 소집한다.
- 승진: 신도세 집사(13교구) 9월 1일 수교회 교장으로 취임  
이명구 성도(1교구) KBS 대구방송 총국장
- 득녀: 김중순 성도 손현지 성도 가정(2-10)
- 학위취득: 손동일 성도(4교구)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학위취득
- 이사: 황병석 성도(3교구) 강남구 대치동 미도@ 208-805 T.011-9033-3760  
정천수 집사(4-10) 서초4동 진흥A.8-206 T.593-1106
- 개업: 김재훈, 김진훈 성도(3교구) 김상식집사, 이순례권사 2남, 4남  
본가 방이점 424-2880
- 주간 식당봉사: 엘리야 남선교회(9월12일) 모세남선교회(9월19일)
- 금주의 식사: 최양진 집사 강윤송 집사 가정  
(장모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보조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 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종미 지역 해외방송) · 강남 케이블 TV CH4-주일 저녁 9시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 30분 · HLXN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호산나넷 - ( <a href="http://hosanna.tv">http://hosanna.tv</a> )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1 이웃사랑 · 교회사랑 바자를 위하여
-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 3 2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성경대학 ·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